

의료인문테마스쿨²호

근대 의학사 기행
제중원 130년과
우리나라 근대의학의 역사



어쩌다 의대생
웃고, 생각하고,
나에게 묻고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도전했던 청춘,
도전하는 청춘 모두가 아름답다.



Index



보도국을 하면서

작성 / 이상민

의료인문 테마스쿨이 시작된 지 벌써 한 쿼터가 지났다. 그 동안 보도국이 아닌 여러 조들을 취재하고 직접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1 호지를 발간하였고, 이번에 2 호지의 편집을 하면서 의료인문 테마스쿨 보도국만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취재를 맡은 조들의 주제에 대해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어떤 것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 처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지도 교수님이 그러한 활동을 계획하셨는지, 그 활동에 대한 동기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주제가 인문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동기들이 어떻게 다른 조를 취재하는 지 보고, 모든 조에 대한 상황을 들으며 의료인문 테마스쿨의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 좋았다. 다른 조들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취재한 것을 글로 써낸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지도교수님인 박윤엽 교수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의 도움으로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보람도 있었다. 다음 3 호지에도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News Letter 연재순서



오페라로 보는 인류애 (1호)

유럽 미술관 여행 (1호)



아름다운 이별 (1호)



근대 의학사 기행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어쩌다 의대생



히포크라테스를 찾아
그리스로 (3호 예정)

클래식음악과 행복한 나
(3호 예정)



인공지능 알아보기
(3호 예정)

Newsletter – 01.

근대 의학사 기행

취재 / 양승헌 담당교수님 / 박기영, 권동락, 조희경 교수님 참여학생 / 전해연, 채현주, 석은재, 이나영

주변국들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국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정치 논쟁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고 국사 관련 자격증은 취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 중 하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사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국사 선생님들과 국사 강의를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모두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의학이라는 학문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의학도로서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필자 역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학 공부를 하기도 바쁜 상황이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에 대해 접할 기회가 드물다.

의료인문테마스쿨의 ‘근대 의학사 기행’ 조는 이런 드문 기회를 얻은 학생들이었다. 과연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을까? 2017년 10월 31일 오후 4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의 414호 교실에서는 제중원의 역사와 선교사들의 사상에 대해 다룬 책인 ‘제중원 130년과 근대의학’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저) 을 바탕으로 한 발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사진 1. 발표 수업을 준비하며 책 ‘제중원 130년과 근대의학’을 읽고 있는 학생들.

“제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교리를 전파하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의학 교육과 고등 교육의 산실이자 정치, 외교적 가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중원의 4대 원장인 에비슨(사진 2)은 제중원과 한국의학의 최대 공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업적으로는 콜레라 예방 사업, 해부학 책의 의학용어를 한글로 정리한 것, 교과서 편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참여학생 채현주)

“제중원과 관련해 서울의 선교사들과 평양의 선교사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선교사들은 의료행위와 전도가 함께 가는 것이라 의료사업이 성공하면 전도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평양의 선교사들은 전도에 전념을 했고 의료 사업이 업무 중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했지요. 무엇보다도, 외국 거대 자본을 무분별하게 흡수해 의료 사업을 벌이기 보다 자급자족할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서울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했습니다.” (참여학생 석은재)



사진 2. 올리버 R. 에비슨

“전도 과정에서 의료는 전도 초기 경계심을 풀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다가 나중에는 소홀해 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중원의 원장 에비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 일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능력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선교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정의 아들이 제중원의 1 회 졸업생이라는 점에서 신분 차별 의식을 철폐하고자 하는 그의 교육적 사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학생 전해연)

100 여년 전, 자신들과 일말의 관련성도 없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조력자가 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치열한 고민을 ‘근대 의학사 기행’ 조는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의학적 지식에 정통해 유능한 의사가 되는 것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의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과거의 제중원과 선교사들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Newsletter – 02.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취재 / 김대영 담당교수님 / 예미경 교수님 참여학생 / 이재윤, 김지수, 김태균, 이건욱

차가운 바람이 살갓을 아리는 11 월 초, 쿼터방학이니 재시험이니 각자의 정신 없는 스케줄을 뒤로하고 학교에서 다시 만난 동기들이었다. 저마다의 새로운 목표와 결심을 떠올리며, 동기들은 2017 년 마지막 쿼터의 수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듯 보였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항상 그랬듯 달라진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고, 각자의 인생에 또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었다.

인생에서 젊은 나이를 우리는 사계절 중 푸른 봄, 즉 '청춘(靑春)'이라고 한다. 그 젊은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봄에 깨어나는 만물처럼 마냥 다양하고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때로는 편협한 생각에 단조롭기도,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유치하게,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나중에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자연스레 스며 나오는 온갖 경험과 교훈들은, 그제서야 막 눈을 뜬 청춘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모험'이고 또 하나의 재미난 '인생'이다.

보통 청춘은 도전하기 좋은 나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본인은 그 '도전'이 마냥 일상적인 굴레를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의 일로부터 벗어나거나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 본연의 일에 충실하기. 무모하게 일을 벌이다 실수해서 좌절하거나 오히려 그 실수를 바로잡고 일어나기. 우리 인생의 '봄날'에 이렇게 매 순간 부딪히고 경험하며 배워나갈 수 있는 일 모두를 '도전'이라는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대단한 계획이 필요할 수도, 아니면 사소한 동기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도전이란 말은 어쩌면 청춘에게 자연스럽게도 마땅히 마주해야 할 운명일지 모른다.

11 월 1 일 학교 근처 식당에서 4 명의 본과 1 학년 학생들과 이비인후과 예미경 교수님이 모임을 가졌다. 각자 의료인문테마스쿨을 시작하면서 정한 나름의 목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 차 만난 것이다. 누군가는 일상에서 벗어난 취미 생활을 위해, 누군가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나름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그들의 도전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대구의 좋은 여행지를 외부인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명소를 동기들과 함께 다녀보던 본과 1 학년 이건욱 학생은, 단순히 산책로인줄만 알고 방문했던 곳에서 새로 만들어진 놀이동산을 우연히 발견하고 동기들과 직접 체험해보는 뜻밖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김태균 학생은 동기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거나 예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 정리해보며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고, 김지수 학생은 자취 생활을 하며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부모님께도 이를 선사해보였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본과 1 학년 이재윤 학생은 학업에 의한 부담 때문에 처음 계획했던 카페 탐방 목표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워 차라리 학교 수업에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에 힘입어 목표를 새롭게 잡았다. 이에 학생들은 단순히 도전의 성공유무보다는, 도전을 실패했다면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물론,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전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도전은 그 하나하나가 교훈이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하고 그 기억들이 애뜻하면서도 때로는 쓰라린 것이다. 하지만 도전에 대한 의지가 항상 충만하기란 어렵고, 처음 도전하던 마음가짐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교수님과 학생들이 의료인문테마스쿨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해결법은 바로 동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혼자서 목표를 정했을 때는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그들의 목표들이, 서로에게 꼭 이루기로 약속하고 과정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생각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음에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전하는 청년은 현실적인 문제와 의지 등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그렇기에 도전하는 청년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흔쾌히 박수를 쳐주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청년을 보내는 학생들 역시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경험을 많이 쌓기를 바란다. 도전하는 청년은 언제나 부럽다.



도전했던 청년, 도전하는 청년 모두가 아름답다.

Newsletter – 03.

어쩌다 의대생

취재 / 이찬희 담당교수님 / 박순우 교수님 참여학생 / 안효원, 배지원, 조현수, 김도연, 최석준

사람이 느끼는 희로애락(喜怒哀樂), 즉 감정의 총량은 어떻게 될까? 물론 감정이라는 것을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 대학생에 비해 의대생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대학생활 동안 더 많은 양의 감정을 느낀다고 종종 생각하고는 한다. 주말이 끝나고 다시 월요일이 찾아올 때의 노여움, 또한 그 주의 끝에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슬픔,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고 다시 휴일을 맞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 일주일마다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렇듯 다양하고 많은 감정을 느끼는 의대생이지만, 역설적으로 감정이라는 것은 계속 노출되면 무덤덤해지기 쉬운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학교생활을 할수록 감정이 쉽게 메마르고 무감각해지며, 결국에는 스스로에 대한 탐구나 질문을 그만두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또한 요즘 머리를 맴돌곤 한다.

의대생 감정과 자신에 대한 탐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료인문테마스쿨과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박순우 교수님이 맡고 계신 '어쩌다 의대생' 조를 찾아가게 되었다.

10 월 31 일 오후 6 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4 층 예방의학 회의실을 찾아가자 박순우 교수님께서도 아웃백 도시락, 다양한 과자, 초콜릿과 함께 본 기자와 '어쩌다 의대생' 조의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조 활동에 앞서 저녁 식사를 함께 먹기 시작하였다. 먹는 동안 서로 나눴던 이야기는 '휴대폰 이야기, 스팸 전화 왔다고 수업 중 10 분이나 나가있었던 예과 2 학년 학생 이야기, 왜 같은 기계에서 난방과 냉방이 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등 시시콜콜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이를 이야기하는 교수님과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조현수 학생이 가족 분이 휴대폰을 새로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무리하였다. 나름 '나에 대한 탐구'라는 꽤 있어 보이는 인문학적인 주제를 취재하러 '철학자'인 양 당당하게 들어갔으나, 맛있는 저녁에 간식까지 얻어먹고 '배부른 돼지'가 되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덤이다.

본격적인 조 활동이 시작되었고,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삶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소 특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 중 독특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로 토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조현수 학생은 독특한 의사의 예시로 의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의 참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본인은 정치계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하였으나 다소 망설이는 듯 하였다.

최석준 학생은 의학전문기자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대중에게 친숙한 의사, 친숙한 의학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덧붙여 자신이 글 쓰는 것에 재능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초등학교 시절 남들보다 반성문을 빨리 짚꽂 채워 써내었다는 것을 열심히 피력하였다.



사진 1. 발표를 훌륭히 해낸 조현수 학생

김도연 학생은 정신의학연구소 대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신의학신문과 마음 다루기 어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러면서 물론 생업은 따로 있겠지만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폐쇄적인 의사 사회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였으며, 자신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안효원 학생은 정신과 의사에서 의료 컨설팅 CEO 가 된 사례를 이야기 하였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하루 2 시간씩 자며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효원 학생은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박박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였다.

가장 조원들과 교수님의 관심을 받은 이야기는 배지원 학생이 준비한 내용으로 카페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요즘 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와, 그거 일거양득 아니냐?'라는 교수님의 농담 뒤로, 배지원 학생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 또한 잘 본다고 생각하며, 대학 병원처럼 시간에 쫓겨 환자와의 소통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것 같아 이런 카페에서 진료하는 의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보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소신이 확신해 행동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자신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본적은 있으나, 과연 환자들이 1차적으로 그 카페를 찾을 까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다소 망설이게 한다고 하였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은 후 박순우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본인은 의대생으로서, 앞으로 평범한 의사 생활 외에 독특하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끝으로 그 날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취재 후, 강의실이나 수업시간 중에는 볼 수 없었던 '어쩌다 의대생' 조원들의 밝고 즐거운 모습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다. 다행히 활동하는 시간을 이용해 다시 감정의 끈을 팽팽하게 조이고 표현하는 듯 하였다.



사진 2. 학창시절, 반성문 쓰기에 매우 자신이 있었다는 최석준 학생

또한 타인의 사례들에 대해서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해보는 모습이, 아직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었다.

말 그대로 이번 취재 대상이었던 ‘어쩌다 의대생’ 조는 ‘웃고, 생각하고, 나에게 묻고’를 의료인문테마스쿨을 통해 실천하였던 것이다.